

《清風閣》에 나타난 ‘世情’ 文化

박 명 진*

<目次>

I. 緒論	III. 《청풍갑》 속 일상생활과 풍속
II. 《청풍갑》 속 사회생활과 경제활동	IV. 結論

I. 緒論

《清風閣》은 清代 중엽 편찬된 중편의 評話體 小說로,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판본은 嘉慶 24년(1819) 奉孝軒에서 간행된 것이며, 32회본이다. 작가는 浦琳으로 乾隆 시기 揚州 지역에서 說書를 공연하던 예인이다.¹⁾ 가경본에 수록된 梅溪主人의 서문을 보면, “《청풍갑》은 실제로 있었던 일과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봉산은 시정의 한 무뢰배로...”²⁾라고 했다. 또 이 책을 간행한 이유에 대해 “이 책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스러져가는 풍속을 진작시키고 퇴폐한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으며, 또 “세상의 도리와 사람의 마음가짐에 모두 쓰임이 있다.”고 하였다.³⁾ 이를 통해 《청풍갑》이 피봉산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부교수

1) 胡士瑩, 《話本小說概論》, 中華書局, 1980, 624-625쪽.

2) 董文成 等編, 《中國古代珍稀本小說續1·清風閣》, 春風文藝出版社, 1997, 317쪽, “惟《清風閣》一書, 既實有其事, 復實有其人, ...奉山, 則一市井無賴子耳, ...”

경험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풍속을 바로잡아 세상을 勸戒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풍갑》은 孫大理가 청풍갑에서 살해당한 ‘청풍갑 살인사건’을 包公이 해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한편 손대리의 사위인 피봉산의 致富와 신분상승 과정을 삽입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포공이 등장하는 ‘包公文學’에 속하는 작품으로, 公案小說 《三現身》(《警世通言》 第13卷 《三現身包龍圖斷冤》)에서 제재를 취하고, 世情小說의 요소를 삽입하여, 제재유형의 측면에서 볼 때 ‘공안소설’과 ‘세정소설’의 요소가 결합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⁴⁾ 그런데 이 작품에서 세정을 다룬 부분은 새롭게 창작되어 삽입된 부분으로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포공문학 중 사실적인 세정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世情書’의 개념은 魯迅이 《中國小說史略》에서 명대 소설의 흐름을 논하면서 제시하였는데, 그는 “신마소설이 성행하던 때, 세상 사람들의 생활을 기록한 소설들도 갑자기 생겨났다. ...세대의 묘사를 통해 그 무상한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혹자는 이것을 ‘세정서’라고 부른다.”⁵⁾고 했다. 세정서는 청대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의 세정소설은 대체로 풍속과 사회생활, 가정의 소소한 일상 등을 중심으로 인정과 세태를 묘사하고 그 변화무쌍함을 반영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⁶⁾ 《청풍갑》은 피봉산의 치부를 통한 신분상승 과정을 서술하면서 그를 둘러싼 세정을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특히, 李斗의 《揚州畫舫錄》, 金兆燕의 《捫子傳》 등의 기록을 통해 작가 포림이 자전적 요소를 바탕

3) 같은 책, 317-318쪽, “予因是書膾炙人口, 可以振靡俗、挽頹風、...”, “非無裨於世道人心之用也.”

4) 박명진, <《淸風閣》의 ‘公案-世情’ 題材類型 분석>, 《東亞人文學》 제31집, 84쪽.

5) 魯迅 著, 《魯迅全集9·中國小說史略》, 人民文學出版社, 1996, 179쪽, “當神魔小說盛行時, 記人事者亦突起, ... 又緣描摹世態, 見其炎涼, 故或亦謂之‘世情書’也.”

6) 張俊 著, 《清代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7, 39쪽.

으로 이 작품을 창작했음을 알 수 있는데,⁷⁾ 이러한 창작 과정은 이 작품이 세정 문화를 더욱 사실적으로 담아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청풍갑》은 평화에서 발전되어 왔다는 태생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평화체 소설은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소시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작품이다. 陳汝衡은 《說書史話》에서 “이 이야기를 공연할 때에는 완전히 시정의 사투리를 사용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게 소시민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야기에서 가장 빼어나 절정에 이르는 부분은 바로 피봉산이 새해를 맞아 음식을 준비하고, 혼인을 하고, 무뢰들과 어울려 도박을 하는 등의 부분인데, 정말 들어보면 항상 크게 웃게 된다.”⁸⁾고 하였다. 이것은 《청풍갑》이 다채롭고 흥미 있는 소시민의 생활을 담고 있으며, 익살스러운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음을 분석한 것이다. 《청풍갑》이 전문적으로 시정 인물들의 사회생활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이 작품을 ‘市井小說’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⁹⁾

《청풍갑》은 내용 가운데 세정을 묘사한 부분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이후 평화(혹은 說書, 評書 등으로 불림) 장르로 계속 발전하였다. 이러한 《청풍갑》의 발전은 江南지역의 도시 발달과 관련이 있다. 청대 건륭 시기 양주는 고도로 변화해졌으며, 통속문예가 발달하면서 평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호사영은 “송·원 강사의 평화를 계승하여 청대에 특히 발전을 했는데, 가장 먼저 중심이 된 곳이 양주이다. 그 후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그 지역 방언으로 공연하는 평화가 있었다.”고 했다.¹⁰⁾ 《청풍갑》은 양주에서 포림의 제자들 張秉衡, 陳天恭 등에 의해 전수되어 공연되다가, 太平

7) 포림은 《청풍갑》을 설서의 형식으로 공연하였는데, 이 이야기에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작가의 假名이 ‘皮五’였는데, 작품에서 피봉산은 주로 ‘皮五癩子’로 불린다. 胡士瑩, 앞의 책, 625쪽.

8) 같은 책, 625쪽, 재인용.

9) 董國炎, <論《清風閣》的演變及其意義>, 《黑龍江社會科學》, 2008년 제1기, 105쪽.

10) 胡士瑩, 앞의 책, 614쪽.

天國 시기 4대 제자인 龔午亭이라는 걸출한 예인에 의해 공연되었다. 朱黃의 《龔午亭傳》에 의하면, 공오정은 설서에 매우 뛰어나 청중들을 완전히 매료시켰다고 한다.¹¹⁾ 소설작품이 평화로 전환되어 발전하면서 공안 이야기는 약화되었고, 세정에 대한 묘사가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청풍갑》의 세정 묘사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풍갑》의 세정 묘사는 주요인물인 피봉산의 致富와 신분상승 과정을 서술하면서, 도시의 사회경제, 소시민들의 일상생활과 풍속 등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정소설은 사회생활 방면에 대한 사료적 가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청풍갑》은 공안소설에서 출발하여 세정소설을 결합시키고, 이후 평화작품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작품 속 세정 묘사가 갈수록 주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풍갑》에 나타난 ‘세정’ 문화의 몇 가지 단면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청풍갑》 속 사회생활과 경제활동

《청풍갑》은 포공의 등장과 함께 宋代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세정에 대한 묘사는 포림의 자전적 요소가 개입되면서 상당 부분 明·清代 소시민들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흡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작품은 無賴의 삶에서 신분상승을 이룬 피봉산의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은환전소·전당포·음식점·주점·가구점·南貨店(남방 특산물 가게)·생선가게 등이 성업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11) 같은 책, 631쪽, 朱黃의 《龔午亭傳》 재인용.

1. 무뢰의 사회생활

《淸풍갑》의 주요인물인 피봉산은 처부를 통해 신분상승을 이루기 전에는 전형적인 시정잡배였다. 그는 성격이 거칠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금전을 갈취하기도 했으며, 일정한 일이 없고 무리와 어울려 다니며 도박을 하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다. 그의 모습은 명·청대에 도시에서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무뢰를 닮아 있다. ‘무뢰’는 명대 중기부터 뚜렷한 계층을 형성하면서 영향력을 키워간 존재였다. 이들은 “평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본분도 지키지 않고, 별로 재산도 없으면서 정상적인 생업에는 종사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집단을 조직하여 비합법적인 행동(주로 폭력과 사기)으로 사회에 기생하여 사는 자”라고 할 수 있다.¹²⁾

《淸풍갑》 제10회~제15회에서 피봉산은 전형적인 무뢰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사람들에게 ‘皮五癩子’로 불렸다. 피봉산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머리에는 개화모를 쓰고 몸에는 해진 저고리를 걸치고, 손에는 대나무 가지를 들고 발에는 엉망인 짚신을 신고, 술에 잔뜩 취해 비틀비틀 장아주머니 앞으로 걸어와서는”¹³⁾ 술을 사달라고 술주정을 하는 무뢰의 전형적 형상이다. 그는 과일 행상을 하다가 거지가 되었고, 도박으로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모두 탕진했다. 또 그는 비단가게의 점원에게 사기를 치고 관아에 붙잡혀 갔는데, 훗날 장인이 된 손대리의 도움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손대리로부터 장사 밀천까지 받았으나 도박으로 모두 날려버렸다. 그는 손효고와의 혼인을 앞두고 집도 살림살이도 아무 것도 없었으며, 중매를 선 장아주머니가 빌려준 돈으로 간신히 셋집을 마련하였다. 그는 신흠살림을 위해 장만한 셋집에서도 소란을 피웠고, 혼인하는 날에도 무뢰배 친구들을 불러들여 술을 마시고 놀았다. 그는 혼인 후에도 도박에 빠져, 밀천이 떨어지자 이불과 요까지 전당포에 맡겼다. 제14회에는

12) 오금성 외 지음,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373-374쪽.

13) 董文成 等編, 앞의 책, 378쪽, “頭戴一頂開花帽, 身穿一件破棉袄, 手提着青竹梢, 腳踏着亂稻草. 吃得醉熏, 蹣跚踉蹌走到張媽媽面前.”

피봉산이 자신의 무뢰로서의 특성을 직접 손효고에게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작품은 마치 공연 현장에서 설서인이 기예를 하듯 생동감 넘치는 대사를 통해 평화체 소설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마누라, 내가 말할 테니, 당신 귀로 들어봐. 내가 관직을 말할 테니, 당신 진짜 들어봐, 나는 조정의 반항아 일을 만드는 무뢰배이고, 까마귀 중의 대마왕이고, 쌀 속의 식충이지만, 하늘나라 소주성군의 강림으로, 자칭 아왕대제가 재위한 자이니, 성은 피, 이름은 봉산, 호는 오라자라네, 알겠느냐?¹⁴⁾

작품은 해학적인 자기소개를 통해 피봉산의 무뢰와 같은 삶을 묘사하고 있다. 명·청시대 무뢰에는 여러 형태가 있었으며, 光棍·地痞 등은 무력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로 대개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다니며 온갖 불법을 자행했다. 강남지역에서 이들의 무리를 打行이라 했다.¹⁵⁾ 피봉산은 집단을 형성하여 조직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무뢰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품은 이러한 무뢰들의 사회생활의 단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18회~제21회는 피봉산이 도박을 해서 치부를 하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피봉산이 도박으로 큰돈을 딴 후에 도박을 추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潘二爺를 찾아간다. 작품에는 반이아가 피봉산을 도박에 끌어들이고 후 전당포·옷가게·신발가게·방앗간·기름집·방앗간·환전소의 주인들을 불러 모으고, 하루 종일 바빠 갖가지 음식을 마련하여 큰 도박장을 준비하는 모습이 세밀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다. 도박을 알선하여 이득을 얻는 것은 무뢰의 돈 버는 방식 중 하나이다. 제25회는 피봉산이 치부를 한 이후 반이아의 도움으로 무뢰배 시절 빚들을 모두 청산하고, 종전 자신의 나쁜 행적에 대한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주변 무뢰

14) 같은 책, 398쪽, “奶奶, 待我告訴, 你耳朵聽着了; 待我說一個官衙你聽, 聽聽真個, 我是朝廷逆子的花頭的頑民, 鴉子的魔頭, 米裏的蠹蟲, 按上界燒酒星君臨凡, 自稱訛王大帝在位的, 姓皮名奉山, 插號五癩子, 你可知道麼?”

15) 오금성 외 지음, 앞의 책, 374쪽.

들과의 관계까지 깨끗이 정리하고 員外郎의 자리에까지 올라 신분상승을 이루는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무뢰가 관부에 들어가는 사례도 많았다고 한다. 무뢰는 평소에 서리 아역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서리의 중요한 수입원의 하나가 무뢰들이 제공하는 뇌물이었다.¹⁶⁾

《청풍잡》의 이야기는 작가 포림의 자전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작가의 인생역정은 작품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작가의 경험은 어느 정도 무뢰 집단과 닮아 있다. 《양주화방록》 卷9 《小秦淮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포림은 자가 천옥이다. 오른손이 짧고 구부러졌다. 어려서 고아로 자라 성안에서 걸식하였다. ... 수년이 지나고 대동문 조교 남쪽에 있는 한 찻집의 여주인이 포림에게 호로라는 도박을 가르쳤고, 그는 끼고 다니면서 백 번에 한 번도 지는 일이 없었다. 이로 인해 돈이 쌓여 집도 얻었다. 그 여주인과 이웃하여 살았는데, 오적대에 여주인의 조카가 평화를 하며 살았다. 매일 여주인의 집에서 연습을 했다. 포림은 오랫동안 귀어 익어 평화를 어렵지 않게 배우게 되었다.¹⁷⁾

명·청시대 무뢰의 한 형태로 걸개의 외형을 갖춘 집단도 있었다. 당시 걸개의 구성이 복잡한데, 그중에는 무뢰의 한 형태로서 존재하기도 했다. 또 걸개 중에는 ‘藝丐’라 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다루고, 곤봉으로 무예를 보여주고, 갖가지 동물을 다루는 걸개 등도 있었다.¹⁸⁾ 포림의 인생 경험은 무뢰를 가까이에서 접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생활을 잘 묘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6) 같은 책, 394쪽.

17) [清] 李斗 撰, 《揚州畫舫錄》, 中華書局, 2001, 205쪽, “浦琳, 字天玉, 右手短而振, 稱挹子. 小孤. 乞食城中. ... 逾年, 大東門釣橋南一茶爐老婦授挹子以呼盧術. 挹子挾之以往, 百無一失. 由是積金賃屋, 與婦爲隣. 在五敵臺. 婦有姪以評話爲生, 每日皆演習于婦家. 挹子耳濡已久, 以評話不難學.”

18) 오금성 외 지음, 앞의 책, 389-391쪽.

이외에도, 작품 곳곳에서 무뢰들의 오락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11회에는 무뢰들이 天九牌를 노는 모습을, 제14회에서는 피봉산의 무뢰배 친구들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거리낌 없이 마시고 酒수를 하며 즐기는 모습 등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2. 소시민의 경제활동

송대 이후 도시화, 전국적 시장의 형성, 농산물의 상품화, 인구의 대량 이동 등으로 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송대부터 계속된 교통망의 정비와 京杭運河의 영향으로 송대 이래 강남 대도시 특히 강소와 절강 두 성에 전국의 3분의 1에 달하는 도시들이 몰려 있었다. 이곳들을 중심으로 주위의 여러 市鎮에서는 상업이 크게 발전하였다.¹⁹⁾

우선, 《청풍잡》은 상인들의 상업활동과 그로 인해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였다. 제1회는 손대리가 동생 孫文理와 함께 浙江에서 강남으로 목재를 팔러 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송대 이후 사회풍조의 변화에 따라 농업을 포기하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또한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손대리와 손문리 형제 역시 이러한 부류로 목재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절강에서 식솔들을 거느리고 상업이 발달하고 전국 각지의 생산품들이 모이는 시장이 발달한 강남으로 목재를 팔러 왔다. 이들처럼 원거리를 움직이는 객상들은 위협에 노출되기 쉬웠다. 상인들은 외지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자나 형제 혹은 사촌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뭉쳐서 장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²⁰⁾ 작품에서 손대리와 손문리는 함께 이동하던 중 헤어지게 되어 각자 자신들의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 손대리는 도로가에 있는 목에 가게를 열어 주점을 시작하면서 청풍

19) 같은 책, 557-558쪽.

20) 같은 책, 564쪽.

값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 손문리는 형님 가족과 헤어진 후 목재 장사가 잘 되어 큰돈을 벌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郎風, 毛順卿과 동행하여 張同升과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런데 손문리는 장동승에게서 술대접을 받고 만취하여, 낭풍과 모순경에 의해 살해되고 돈을 잃었다. 상인들은 객지에서 장사를 하다보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명·청시대 유행하던 상업서적에는 상인들이 꼭 지켜야 할 경계사항을 적은 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술집에 오래 머물지 말고 아는 사람을 만나서도 과음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적혀있다.²¹⁾ 손문리는 술집에서 만취하여 악한들의 표적이 된 것이다.

다음으로, 《청풍잡》은 손대리의 사위인 피봉산이 도박을 통해 치부를 하고 신분상승을 이루는 과정을 중심으로 소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여기에서는 도시 하층민들의 경제활동 및 물가와 인건비의 경제적 가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작품 속에는 도시 하층민들이 다양한 상업활동이 펼쳐지는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다. 우선 식재료나 음식을 파는 상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14회에는 도박으로 무일푼이 된 피봉산이 두부가게에 가서 비지와 두부피를 얻어오는 장면이 등장하며, 제15회에는 남문 앞 전분 수제비를 만드는 가게가 개업을 하고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봉산의 눈을 통해, “탁자에는 전분 수제비가 한 무더기 쌓여 있는데 단팥으로 된 것, 고기로 된 것들이 탁자에 놓여있고, 밖에는 사람들이 전분 수제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발 디딜 틈도 없이 밀린”²²⁾ 광경을 보여주었다. 피봉산은 외상으로 전분 수제비를 먹으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주인과 다투던 중, 한 손님이 대신 돈을 내준 덕에 전분 수제비 스무 개를 가져다 손효고와 나눠 먹었다. 또 제17회에서는 피봉산이 새해 준비를 위해 외상으로 물건을 장만하는 장면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피봉산이 들른 가게들은 쌀가게, 간장가게, 땀

21) 같은 책, 563쪽.

22) 董文成 等編, 앞의 책, 563쪽, “有張案子擺些粉子, 堆了一堆: 有豆沙的, 也有肉的, 放在案上. 外面有些人在塊等粉團, 擁擠不開.”

감가게, 기름집, 도자기집, 숯가게, 남방 특산물을 파는 남화점, 과일가게, 생선가게, 닭오리집, 화방 등이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상업활동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작품에는 객점, 주점, 차관을 비롯해 각종 복장과 소품을 파는 옷가게, 신발가게, 떡집, 기름집, 방앗간 등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소도시에서 상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피봉산은 치부로 신분상승을 이룬 후, “아무 일 없이 집에 있다 보니, 마음속에 전당포나 열고 소일거리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²³⁾, 크게 전당포를 열었고, 전당포를 하던 汪朝奉의 가게까지 합병해 富商이 되어 여유롭게 전당포를 꾸려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당시 상업이 발달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상업활동에 뛰어들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청풍잡》에는 각종 화폐가 유통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은자를 돈으로 바꾸는 환전소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작품에는 銀子·大錠·紋銀 등의 화폐가치로서의 은자의 종류가 등장하고, 星·鏤·兩·錢·文·分 등의 은자 단위도 등장한다. 이밖에도 작품에는 물건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11회에서는 피봉산이 아주 가난하던 시절 장마마의 도움으로 최저가의 집을 구하는 장면을 서술했는데, 집세가 1년에 2량8전이였다. 제21회~제22회에서는 피봉산이 부자가 된 후 저택을 마련하는데, 집값이 원래는 4천5백량이었으나, 흥가가 되어 집 가치가 떨어져서 2천량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피봉산은 결국 깎아서 8백5십량에 매입했다. 이외에도 제12회에 신혼살림 장만을 위해 피봉산은 싸구려 침상이 1량인 것을 5전으로 깎아 사고, 침대 배달비로 14문을 지불했다. 또 피봉산이 집에서 도박을 위해 가져간 이불을 전당포에 8전에 맡기고 그 전표를 7백문에 넘기고, 요는 6전에 잡히고 그 전표를 4백문에 팔았다. 또 인건비에 관한 기록들도 있다. 제10회에서 강부인은 꽃을 파는 노파 장아주머니에게 손효고의 혼사를 부탁하며 5량을 줬다. 또

23) 같은 책, 446쪽, “在家無事, 心內想開個當舖玩玩.”

작품에는 하인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제23회에서 피봉산이 부자가 된 후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집안일을 하는 하인들에게 매년 2량4전을 지급했으며, 묘에서 제를 지내는 일을 도와준 하인들에게 각각 5전, 할머니들에게는 각각 3문을 지급했다. 10세 여자 하녀의 몸값은 15량이었고, 젊은 사내 하인에게는 매년 1량6전에 분기마다 3전을 주었고, 계절마다 겉옷을 주었다. 제25회에는 문지기 하인 門公을 비롯해 다양한 역할이 있는 하인들이 등장하는데, 옷을 만드는 成衣에게는 임금을 매년 9량6전 지급했고, 손효고가 임신을 하자 유모를 데려왔는데, 임금이 매년 6량이고 분기마다 1량을 더 주었고, 사계절 옷이 지급되었다. 또 제27회 손효고가 해산 후 산파에게 50량의 은자를 주었다.

《청풍갑》에는 소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내용과 당시 화폐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당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의 단면들을 파악할 수 있다.

Ⅲ. 《청풍갑》 속 일상생활과 풍속

《청풍갑》은 도시 하층민들의 일상생활과 풍속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세정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양주지역의 방언을 통해 더욱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소시민들의 풍속을 담아내고 있다. 중국 고대소설사에서 이처럼 소시민들의 일상생활과 풍속을 상세히 묘사한 작품은 아주 드물다. 따라서 《청풍갑》의 이러한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혼인과 가정생활

《청풍갑》은 ‘청풍갑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소시민들의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을 사실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다. 작품은 이를 통해 다양한 세정 문화의 단면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중 청풍갑 사건의 직접적 발생 배경이 된

것은 바로 나이 많은 손대리와 젊은 재취였던 강부인의 혼인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손대리는 주점도 장사가 잘 되고 劉公條의 도움으로 관아에서 書吏를 보조하는 일까지 하게 되면서 청풍갑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다. 그는 이런 생활에 아주 만족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조강지처인 湯夫人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가정생활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시작했다. 그는 “이때부터 매일 관아에 나가 매우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고독감을 느꼈고”, “방에 들어가니 침대 한쪽이 썰렁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재취를 생각하게 되었다.”²⁴⁾ 그는 동료들에게 “내가 원래는 재취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집안에 살림을 돌볼 사람이 없고 어린 딸아이만 있으니까...”²⁵⁾라며 자신의 재혼을 합리화했다. 송대에 남자는 홀아비가 되면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사일 때문에 대부분 재혼을 했다. 南宋시대 袁采의 《袁氏世範》에 의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 중의 하나는 중년에 이르러 아내를 잃는 것이다. 당신의 어린 자식들을 보살피 줄 사람이 없고 자식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고, 바느질하고 여성이 해야 하는 다른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의 여지없이 재혼을 하게 된다.”라고 했다.²⁶⁾ 작품에서는 남자의 재혼에 대해 “죽은 아내를 이어 후실을 들이는 것은 예법에 맞는 것이다.”고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대리는 재취에 대해 “나는 생긴 것은 보지 않고, 집안일을 잘 해내서 유지하고 어린 딸아이 잘 보살피면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²⁷⁾

《청풍갑》에서 손대리가 재혼을 하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은 아주 흥미

24) 같은 책, 326쪽, “老爹從此每天出去進衙辦事, 十分勤勞, 就是晚上回來覺得孤苦.” “老爹進房, 未免半床冰冷, 不覺心中有要續弦之念...”

25) 같은 책, 328쪽, “我本不該娶, 奈因家下無人照管, 只有小女一人...”

26) P.B.이브리 저/배숙희 역, 《송대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 한국학술정보(주), 2009, 334쪽.

27) 董文成 等編, 앞의 책, 328쪽, “續弦繼配, 此是正禮.” “我又不要人品好醜, 只要可以當家撐持門戶, 照管小女就是了.”

롭게 혼인과 관련된 문화를 반영하였다. 관아의 젊은 동료가 손대리의 중매에 나섰다. 젊은이는 곧장 마을에 있는 차관으로 갔다. 여기에서 송대 이후 소시민들의 생활문화에서 차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송대 남방에는 곳곳에서 차를 생산하였고 쌀, 소금 등과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애용하는 물품이 되었다. 또 차의 효능이 사람들 사이에 점점 널리 퍼지면서, 도시 도처에 차관이 생겨 민가들과 함께 있었다. 이러한 차관은 대부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이곳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비스를 하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중매를 서거나, 중개를 하거나, 출산을 도와 주거나, 남녀관계를 엮어주는 것 등이었다.²⁸⁾ 《청풍잡》에서는 차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鄉宦 潘노인의 첩이었던 강씨가 그 집에서 쫓겨난 내력을 들려준다. 번노인의 첩으로 사들여 정력이 쇠하여 죽게 되자 그의 본부인이 강씨를 내쫓는 장면 묘사와 본부인과 강씨의 생생한 대화에 이르기까지, 이 대목은 마치 설서인이 평화를 들려주듯이 생동감 넘치게 서술하고 있다. 손대리의 중매인이 차관에 들렀을 때, 번노인의 수하들이 강씨를 찾집으로 데려옴으로써 이들의 혼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작품에서 차관을 통해 혼인이 성사되는 장면에 대한 묘사는 아주 사실적이며 현실을 잘 반영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재혼을 하고도 후처와 큰 어려움 없이 살지만 종종 가정생활에서 재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남자들이 재혼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만하지 않은 계모와 의붓자식 간의 관계였다. 이로 인해 가장이 죽었을 때, 의붓자식과 후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진다.²⁹⁾ 《청풍잡》은 계모 강부인이 손대리를 살해한 후, 모든 재산을 자신이 차지하고 전처의 자식인 손효고를 핍박하여 거지나 다름없는 피봉산에게 출가를 시키는 장면을

28) 伊永文 著, 《宋代市民生活》, 中國社會出版社, 1999, 178-180쪽.

29) P.B.이브리 저/배숙희 역, 앞의 책, 337쪽.

묘사하고 있다. 손효고는 부친의 재혼 소식을 듣고, “계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저세상에서 지켜줘서 현덕한 계모가 들어오길 바랄 뿐이에요.”³⁰⁾라며 어진 계모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물을 흘린다. 이외에도 남자가 재혼을 하고 겪게 되는 또 다른 어려움은 나이가 들어 홀아비가 된 남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일들이다. 이에 대해 《袁氏世範》에서는 “중년이 된 남자는 젊은 여자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홀아비가 처와 결혼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했다.³¹⁾ 《청풍갑》에서는 후처가 된 강부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손대리와 혼인을 한 후 “팔자도 사납지, 또 쉰 넘은 늙은이에게 시집을 왔으니 끝까지 가지 못할 거잖아.”³²⁾라며 실망한 마음을 드러낸다. 이후 그녀는 젊은 孫小繼를 보고 욕정이 일어 부정을 저지르고, 끝내는 손대리를 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강부인의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불만이 ‘청풍갑 살인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풍갑》은 피봉산이 치부를 하여 신분상승을 하고 대저택을 장만하는 인생역정을 묘사하였다. 여기에서 작품은 피봉산과 손효고의 일상생활을 묘사하였고, 그중 대저택에 대한 묘사가 아주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넘친다. 작품은 제19회에서 광동 갑부의 집이었던 일백 進(민가에서 하나의 집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진’이라고 함)의 민가 구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제24회에는 피봉산이 이 대저택에 화원을 조성하는 장면을 서술하였는데, 화원 조성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고 돈을 지불하는 내용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는 宜興에서 石灰를 구입하고, 은 32량을 지불했고, 南京에서 鵝卵石을 구입했고, 蘇州에서 靑石을 구입했으며, 仙女廟에서 목재를 구입했고, 양주의 瓦窰鋪에서 磚瓦와 磨地磚을 구입하고 劉

30) 董文成 等編, 앞의 책, 330쪽, “繼母不知爲人如何? 不知可賢與不賢? ...要望親娘陰靈保佑, 娶得一位賢德繼娘才好.”

31) P.B.이브리 저/배숙희 역, 앞의 책, 339쪽.

32) 董文成 等編, 앞의 책, 334쪽, “命不好, 嫁了又是半本頭, 不得終局.”

元美家에서 生漆을 구입했다. 그는 지역 특산의 최상의 건축 자재를 구입하여 6개월 반 만에 화원을 완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적 묘사를 통해, 작품은 현실적인 세정을 반영하였고, 생생한 생활문화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피봉산과 손효고 부부는 부자가 된 후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이전 소시민 시절에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음식들을 먹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작품은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문화를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부부가 건강을 위해 인삼을 복용하고, 닭을 고아 먹고, 인삼환약·수연탕·인삼탕·제비집죽·天王補心丹·용정차 등을 복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 특히 제22회에서는 이사 후 음식을 장만하는데 두부·달걀·생선·기름·모과주·생강·과 등의 재료를 사와서 煎魚弄豆腐(생선두부전), 打蛋花湯(계란탕) 등을 만들었으며, 제23회에서는 두부·부추·유채·시금치 등의 재료로 芹菜炒豆腐乾子(시금치말린두부볶음)을 만드는 장면과 함께 점심을 다 먹고 진한 차로 입가심을 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또 제27회에는 손효고가 해산 후 찹쌀죽과 달걀 등을 먹고, 한 달 동안 닭의 콩팥 등 내장을 먹었으며, 반이야 집에서 죽과 달걀을 보내오는 등 출산을 한 후 먹는 음식과 풍속을 엿볼 수 있다.

2. 민간의 세시와 풍속

《淸風閣》은 평화체 소설로서 통속적인 이야기를 중시하고 있으며 인물과 사건이 소시민들의 이야기 속에 녹아 있다. 특히, 《淸風閣》은 세시 풍속과 생활풍속을 반영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으로, 중국 고대 소설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고대 백성들의 심미관, 향토문화, 민속, 인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사회사와 민속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³³⁾

33) 董國炎, <清代評話類小說與口述史>, 《南京師大學報(社會科學版)》, 2006年 9

우선, 《청풍잡》의 세시풍속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면, 작품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세시풍속의 묘사는 새해를 맞이하는 ‘過年’에 대한 것이다. 작품의 제16회~제18회에는 臘月에서 正月까지의 백성들의 생활을 근거리에서 생동감 넘치고 세밀하게 묘사하였는데, 이 가운데 음력 설달과 설날의 세시풍속들이 담겨있다. 새해 풍속에 대한 묘사가 진행되면서, 작품은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날짜까지 기록하고 있다. 제16회에서는 피봉산과 손효고가 가난하던 시절 집에서 부엌신인 ‘竈王’을 하늘로 배웅하는 풍습인 ‘送竈’를 준비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송조는 새해를 맞이하는 ‘과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음력 12월 23일이 되자 피봉산은 빌린 돈으로 쌀가게에서 잡쌀, 술지게미, 볶은 콩을 사서 돌아오던 중, 길거리에서 송조 행사에 쓸 옛 ‘竈糖’을 파는 장사꾼을 만나게 된다. 그는 조당의 값이 비싸다며 시비를 걸었고, 길 가던 사람이 싸움을 말리면서 피봉산에게 조당을 사준다. 그날 저녁 피봉산과 손효고는 조왕신에게 바치기 위해 “竈飯을 잘 지어 부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조왕신에게 절을 올리게 했다.”³⁴⁾ 또 피봉산은 “제가 내년에 큰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시면, ...”³⁵⁾이라고 빈다. ‘竈君’은 조왕으로, 중국 한족의 문화에서 이미 상나라 때부터 있었던 부엌신이다. 《荊楚歲時記》에 의하면, 12월 8일을 臘日이라고 하며, 그날에 돼지와 술을 갖추어 조왕신에게 제사했다는 기록이 있다.³⁶⁾ 《帝京歲時紀勝》의 기록에 의하면, 23일 새벽 집집마다 조왕신에게 제사지내는데, 제수물품은 국·탕·조반·糖瓜·꿀떡 등이며, 神馬에게는 향기로운 술지게미와 볶은 콩을 주발에 담아 먹이고, 남자는 열을 지어 절을 하면서 악을 막고 선을 드러내는 말로 축원한다.³⁷⁾ 또 23일에는 조왕신을 진송하여 하늘

月 第5期, 135쪽. 동국염은 評話 《皮五辣子》를 통해 작품에 나타난 풍속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소설작품인 《淸風匣》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4) 董文成 等編, 앞의 책, 409쪽, “煮好竈飯, 奶奶請五爺拜上竈君.”

35) 같은 책, 410쪽, “保佑弟子明年發了大財, ...”

36) 이창희 등, 《중국대세시기 I·형초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2006, 79쪽.

37) 이창희 등, 《중국대세시기 II·제경세시기승》, 국립민속박물관, 2006, 224쪽.

에 올라가게 하였고 하늘에 올라간 조왕신이 1년 동안에 있었던 인간의 선악을 아뢰면 상제가 25일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선악 여부를 조사한 후 화복을 내린다.³⁸⁾ 《칭풍갑》 제17회에는 피봉산이 새해 준비를 위해 외상으로 물건을 장만하는 장면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피봉산이 주인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물건들을 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그의 행실을 알기 때문에 가게 주인들이 얼른 물건을 내주기도 한다. 그는 술집으로 가서 술 2근,醬坊으로 가서 ‘十香菜’를 만들 장아찌와 생강 등을 사고, 빨감가게에 가서 빨감을 한 단 가져오고, 기름집에서 기름 5근을 가져오고, 도자기집에서 그릇들을 챙겨 오고, 숯가게에서 숯과 초를 얻었다. 또 남화점에 가서 과일을 챙기고, 고깃점에서 돼지머리와 달걀과 삼겹살로 만든 새해 음식인 元寶肉을 들고 달아나고, 어물전에서 잉어를 두 마리, 닭고기도 얻었다. 이렇게 작품은 새해를 위해 장을 보는 장면이 아주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서술되어 있다. 이렇게 준비한 재료들로 손효고는 십향채(두부피와 곤약을 다양한 채소와 채소와 볶은 요리)를 비롯해 切麵筋絲子(채 썬 고기가 들어간 칼국수), 胡蘿蔔絲子(당근 채 볶음) 등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었다. 또 설달그믐인 除夕의 광경이 세세히 묘사되어 있다.

피봉산은 “삼십일 저녁이 되자, 부인에게 먼저 생선을 구워 제기에 담게 하고 또 먹을 것들을 모두 잘 볶아서 다 만들어 놓게 했다. 이때 남편이 돌아오자 부인은 “나오리, 이리 오셔서 조상님께 제사 올려요!”라고 했다. 제사를 다 지내고, 조왕신을 영접하고, 원보육을 삶고, 떠들썩하게 보냈다. 부인은 또 화로에 불을 피우고 화로에 대추 등을 구웠다. 그리고 부부 두 사람은 사립문을 열어놓고 ‘수세주’를 마셨다.”³⁹⁾

38) 이창희 등, 《중국대세시기Ⅱ·제경세시기승》, 225쪽.

39) 董文成 等編, 앞의 책, 415쪽, “皮五癩子到三十日晚, 吩咐奶奶先把魚煎起來, 放在頭鉢內, 後又炒好了一切東西, 弄得現現成成. 此刻五爺回來, 奶奶說: ‘五爺, 過來拜家神!’ 然後接竈, 化了元寶, 倒過得熱熱鬧鬧. 奶奶又把火盆旺起火來, 火盆上煨着紅棗等件. 于是夫婦二人開了蘆芭門, 用守歲酒.”

《형초세시기》에 의하면, 세모에는 집집마다 술안주와 과일 등을 골고루 장만하고 밤을 새우는 수세하는 자리에 나아가 새해를 맞이한다.⁴⁰⁾ 《동경몽화록》에도 음력 12월과 제석의 풍속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집에서 화로 주위에 둘러앉아 아침이 될 때까지 잠을 자지 않으니, 이를 ‘수세’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⁴¹⁾ 《제경세시기승》에 의하면, 선달 그믐날에 존경하는 가까운 선생님과 어른에게 묵은세배를 드리고 돌아와 씻고 조상과 신에게 제사지내며 조왕신을 맞이한다. 또 은축을 높이 달아 쪼고 松酒를 실컷 마시며 앉은 채, 아침을 기다리는데 이것을 수세라 하고 장수하기를 비는 뜻이 있다고 하였다.⁴²⁾

이외에도 작품에는 피봉산이 화방에서 袁先生에게 부를 기원하는 대련을 쓰게 하는 장면이 흥미롭게 묘사되어 있다. 대련은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품목 중 하나다. 春聯을 붙이는 풍속은 桃符에서 유래하였다. 《형초세시기》에 의하면, 정월에 도판을 만들고 두 신을 그려 문의 양쪽에 붙이는데 왼쪽에는 神荼, 오른쪽에는 鬱壘를 붙이니 세속에서는 이를 문신이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³⁾ 《燕京歲時記》에 의하면, 선달이 된 이후부터 문인묵객들은 저자 거리 처마 아래에서 춘련에 글씨를 써주고 보수를 받는다고 한다. 또 조왕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는 풀로 붙여 걸어두는 집이 늘어나서 집집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빛난다고 하였다.⁴⁴⁾ 또 작품에는 재앙을 피하는 ‘폭죽’을 터트리고, 새해가 되자 서로 ‘축하합니다!(恭喜!)’라고 새해인사를 건네고, 원보육을 먹는 장면 등이 묘사되어 있다. 폭죽은 제석부터 설날까지 터뜨렸는데, 송대에 화약이 발명된 후 폭죽은 붉은 종이에 싸서 터뜨렸고 터지면서 종이 가 곳곳으로 흩어지는 것은 행운을 비는 뜻을 담고 있었으며, 폭죽이 터지는 소리는 사악한 기운을 쫓는

40) 이창희 등, 《중국대세시기 I·형초세시기》, 81쪽.

41) 이창희 등, 《중국대세시기 I·동경몽화록》, 431쪽.

42) 이창희 등, 《중국대세시기 II·제경세시기승》, 227-229쪽.

43) 이창희 등, 《중국대세시기 I·형초세시기》, 35-36쪽.

44) 이창희 등, 《중국대세시기 II·연경세시기》, 394쪽.

뜻과 함께 명절의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복돋워 주었다.⁴⁵⁾ 새해 첫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새옷을 입고 친척과 이웃에게 세배를 했는데, 이것을 ‘拜年’ 혹은 ‘拜節’이라고 했다.⁴⁶⁾ 《연경세시기》에도 제석이 되면 亥時와 子時 사이에 하늘빛이 더 어두워지면 鞭炮가 더욱 많아지는데, 아침이 되고 밝은 해가 창문에 비칠 때까지 폭죽 소리가 들려온다는 기록이 있다.⁴⁷⁾

이외에도, 《청풍잡》은 세시와 月令 등에 대한 묘사들이 있다. 제8회에서는 손효고가 부모를 모두 잃고 비탄에 잠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때마침 8월 15일 중추절이 되어 집집마다 온 가족이 모이고 집집마다 쌍쌍이 모였다.”⁴⁸⁾고 하여, 다른 집안은 식구들이 모두 모여 함께 가절을 보내는 가운데, 손효가의 쓸쓸함이 더욱 강조되었다. 송대 《夢梁錄》의 기록에 의하면 중추절에 항주에서는 “집안 잔치를 준비하고 자녀들이 모두 모여 가절을 즐기네.”⁴⁹⁾라고 하여, 이날 가족들이 모이는 잔치가 열리는 광경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풍잡》의 생활풍습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면, 작품에는 세시풍속에 대한 묘사와 함께 민간의 장례와 혼례 등 생활풍속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제1회에는 탕부인의 장례의식과 풍속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음 날 길한 시간에, 염을 하고 영좌를 차리고, 아래 자리에 흰 천으로 장막을 치고, 탁자를 흰 천으로 덮었다. 탁자에는 풍등과 변두와 소채 여섯 접시를 놓고, 신위에는 ‘송나라 손대리의 정실 부인 탕씨의 영위’라고 썼다. 양쪽에는 동남녀 인형을 놓고, 돛자리를 깔고, 남백색의 담요를 깔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네 명의 장의사가 염을 시작했다. ...칠일제를 올리

45) 楊渭生 等著, 《兩宋文化史研究》, 杭州大學出版社, 1998, 121쪽.

46) 같은 책, 122쪽.

47) 이창희 등, 《중국대세시기II·연경세시기》, 396쪽.

48) 董文成 等編, 앞의 책, 367쪽. “正逢八月十五日中秋佳節, 家家團圓, 戶戶成雙.”

49) 楊渭生 等著, 앞의 책, 133쪽, 재인용.

고 손님을 대접하는데, 제사를 3번 지내고 천도제를 1번 지냈으며, 염구귀신을 망생했다. 백일이 되어 날을 살펴 출빈을 준비했다. 때가 되자 술을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했으며, 사경에 관을 움직였다. ...출빈하고 3일이 지난 후 매장까지 다 마쳤다.⁵⁰⁾

이를 통해 민간에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작품에서 망자가 죽은 날로부터 빈소를 차리고,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올리고, 출빈하고 매장하는 풍습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묘사하는 부분은 고대의 장례절차 중 시신의 관을 안치해두고 매장을 기다리는 殯禮에 해당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가족들의 망자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표현된 절차라고 할 수 있다.⁵¹⁾ 백일 동안 즐기는 일을 하지 않고 효를 다한 후, 빈례가 끝나면 出殯하고, 관을 수레에서 내려 묘지로 향하는 發引을 하고, 마지막으로 매장을 하게 된다. 《청풍잡》 제8회에는 손대리의 49제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강부인이 “초칠일과 49제를 하고, 삼칠일에 제사를 올리고, 육칠일에 천도제를 할거야.(頭七做, 七七做, 我想三七做個齋, 六七打一個醮.)”라 하여 가장 기본만을 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삼칠일과 육칠일에 격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쓸쓸하게 근처 土地廟에서 염불을 하였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오칠일 혹은 육칠일에 승려나 도사를 불러 천도를 하는 풍습을 반영하였다. 또 ‘七終’으로 손대리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는다. 여기에서 망자에 대해 칠일에 한 번 제를 올리는 풍습 중 삼칠일과 오칠일 혹은 육칠일을 중시하는 풍습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청풍잡》에는 손대리와 강부인의 혼사 과정, 손소계와 강부인의 혼례 준비, 피봉산과 손효고의 혼사 장면 등이 묘사되어 있고, 손효

50) 董文成 等編, 앞의 책, 325-326쪽. “次日吉時, 收殮設供, 下首又掛白布孝幔, 白布桌圍. 桌上擺了風燈、邊斗, 六碗素菜, 一個靈牌位上寫着‘宋大理孫公原配湯氏之靈位’. 兩旁擺的童男女, 容亭蒲合, 藍白毡條, 俱皆齊備, 四班頭開殮. …守七陪客, 做了三個齋, 打了一個醮, 放了一臺焰口, 到了百期, 看了年庚, 預備出殯. 臨期辦酒席酬客, 四鼓起棺. …殯已出過三日, 伏山已畢.”

51) 朱筱新, 《中國古代的禮儀制度》, 商務印書館, 1997, 44쪽.

고의 해산의 풍속, 滿月 행사 등 민간의 풍속들이 그려져 있다.

IV. 結 論

《청풍갑》은 청대 중엽 편찬된 평화체 소설로, 양주에서 설서로 이름난 설서예인이었던 포림이 자신의 인생경력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공연하다가 후에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도시 하층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반영한 평화로부터 발전되어 왔다는 태생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원래 공안소설 《三現身》에서 題材를 가져와 공안소설과 세정소설이 결합된 제재유형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특히 세정을 묘사한 부분에서 소시민들의 사회생활, 경제활동, 일상생활, 세시풍속 등을 세밀하게 담아내고 있다. 중국 고대소설사에서 이 작품과 같이 소시민들의 생활상을 근거리에서 그려낸 작품은 아주 드물다. 《청풍갑》이 세정의 묘사를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후 《피오랄자》라는 제목의 평화 장르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공안소설이 약화되고 세정 요소가 더욱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청풍갑》은 손대리의 ‘청풍갑 살인사건’과 사위 피봉산의 복수를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시민들의 세정을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세정 문화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작품에서는 도시 하층민들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무뢰의 사회생활과 소시민의 경제활동의 단면들을 묘사하였으며, 일상생활과 풍속에 있어서는 새해를 맞는 ‘과년’ 등의 세시풍속과 장례, 혼인 등의 생활풍속의 단면들을 묘사하였다.

《청풍갑》은 세밀하고 사실적인 세정 묘사를 통해 세정 문화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작품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이 반영하는 세정 문화는 사회경제, 생활풍속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고대소설사에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소설작품의 발굴과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1. DONG Guo-yan, *Storytelling Novels in Qing Dynasty and Oral Accounting History*, *Journal of Nanjing Normal University(Social Science)*, Sep, 2006, No.5.
2. DONG Guo-yan, *On the evolution of the Innovation and Significance on Qingfengzha*, *Heilongjiang Social Sciences*, No.1, 2008.
3. DONG Wen-cheng, et al., *Zhongguo Gudai Zhenxiben Xiaoshuo Xu I ·Qingfengzha*, Shenyang: Chunfengwenyi Publishing House, 1997.
4. HU Shi-ying, *The introduction of the vernacular novels*,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1980.
5. Lee, Chang-Hee, et al., *Almanac of Seasonal Customs of China I*, Seoul: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6.
6. Lee, Chang-Hee, et al., *Almanac of Seasonal Customs of China II*, Seoul: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6.
7. LI Dou, *Yangzhouhuafanglu*,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2001.
8. LU Xun, *Complete Works by Lu Xun IX·A Brief History of Chinese Fiction*, Beijing: People's Literature Publishing House, 1996.
9. Oh, Keum-Sung, et al., *The Socio-Economic History of Ming-Qing Times*, Seoul: Yeesan Publishing Co.,LTD, 2007.
10. Patricia Buckley Ebrey / translation by Sook-hee Bae, *Inner Quarters: Marriage & the Lives of Chinese Women in Sung Period*, Seoul: Korean Studies Information, 2009.
11. YIN Yong-wen, *The Citizen Life in the Song Dynasty*, Beijing: China Society Press, 1999.

12. ZHANG Jun, *The Novel history in the Qing Dynasty*, Hangzhou: Zhejiang Ancient Books Publishing House, 1997.
13. ZHU Xiao-xin, *The Etiquette System in the ancient China*, Beijing: The Commercial Press, 1997.

<참고문헌>

1. 董國炎, <論《清風閣》的演變及其意義>, 《黑龍江社會科學》, 2008年第1期.
2. 董國炎, <清代評話類小說與口述史>, 《南京師大學報(社會科學版)》, 2006年 9月 第5期.
3. 董文成 等編, 《中國古代珍稀本小說續1·清風閣》, 春風文藝出版社, 1997.
4. 胡士瑩 著, 《話本小說概論》, 中華書局, 1980.
5. 이창희 등, 《중국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6.
6. 이창희 등, 《중국대세시기 II》, 국립민속박물관, 2006.
7. 李斗 撰, 《揚州畫舫錄》, 中華書局, 2001.
8. 魯迅 著, 《中國小說史略》, 人民文學出版社, 1996.
9. 오금성 외 지음,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10. P.B.이브리 / 배숙희 역, 《송대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 한국학술정보(주), 2009.
11. 伊永文 著, 《宋代市民生活》, 中國社會出版社, 1999.
12. 張俊 著, 《清代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7.
13. 朱筱新, 《中國古代的禮儀制度》, 商務印書館, 1997.

<Abstract >

Qingfengzha (清風閣) is a medium-length Pinghua novel(評話體小說) published in the middle of the Qing Dynasty. It was written by Pulin (浦琳), an artist who performed Shuoshu(說書) in Yangzhou(揚州). This novel has an inherent property that it was developed upon the colloquial languages(Pinghua) reflecting small details of people's daily life. It has been advanced as a genre of Pinghua novel. *Qingfengzha* reflected the culture of the Shiqing(世情) by realistically describing the Shiqing in detail mainly over the story of the murder of *Qingfengzha* and the revenge of the son-in-law for the murder. This novel reflected the culture of the Shiqing by describing the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urban lower classes and their daily life and custom. This research analyzed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Wulai(無賴)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e citizens regarding the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novel. In terms of daily life and custom in the novel, the research analyzed the living customs including New Year's custom, funeral and marriage.

Key Words : 《清風閣》(*Qingfengzha*), 世情文化(Culture of the Shiqing), 사회생활(Social activities), 경제활동(Economy activities), 일상생활(Daily life), 풍속(Custom)